



정부의 지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할 때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신사년(辛巳年)을 보내고 임오년(壬午年) 새해를 맞아 모든 애독자 님들이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일들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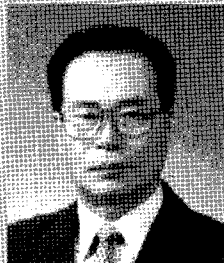
(사)한국포장협회의 신임 회장으로 추대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포장산업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누구와 같이 손잡고 훗날 후학들에게 물려줄 중차대한 일들을 의논할지 그저 막연하고 걱정이 앞설 따름입니다.

돌이켜 보면, 포장산업계의 대 통합이란 전제 하에 지난 1년동안 각계 각층의 열화 같은 여론 속에 우리 포장협회와 포장개발 연구원이 수차에 걸쳐 논의 된 바있는 양단체의 통합 문제도 시기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매듭짓지 못하였고, 제3단체의 태동이란 문제까지 대두되어 어려워져 가기만 합니다.

혹자들은 통합단체만 구성되면 금방이라도 거국적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우리포장업계가 정부지원으로 금방 대성장 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정부로부터 포장업계가 대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떠한 구성이 필요하고 또한 각자가 어떤 자세로 주체에게 협조해야 하는지 새로운 각오와 의지가 더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포장산업은 그 영역이 광범위 할 뿐 아



김 선 창

(사)한국포장협회 회장

“새로운 각오와 의지가 필요한 때”

나라, 내용물의 보호 차원, 상품가치의 극대화, 유통과정의 단순화, 사용자의 편리성 등을 바탕으로 수많은 가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나무라고 볼 때, 가지들이 너무 많고 무거워 몸통이 지탱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가지들조차 각자의 권익을 위하여 협동정신과, 이해, 관용, 협조 등을 서로가 외면하고 있어 이제 그 뿌리조차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포장협회를 향간에 이야기하듯이 연포장 업계의 모임이라고 격하시키고 있지만,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구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전신)에서 포장관련 연구·진흥사업이 약화될 즈음, 국내 모든 포장관련 단체들이 거국적인 포장단체의 태동을 엄두도 못냈으며 우리 포장협회 역시 다양한 성격의 업계를 총 망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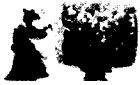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 '91년, 우선 뜻이 맞는 동종업계인 연포장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포장협회를 태동시켰으며, 이사진 20여분이 지난 10년간 각 1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장차 전업종이 참여할 수 있는 거대한 단체로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결과 사진제판, 인쇄잉크, 가공기계, 플라스틱성형, 포장원소재, 연포장가공, 물류기기, 연구소, 파렛트, 지관, 제지

일부 등 관련 업체들이 가입하면서부터 점차 다양하고 총체적인 협회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1996년 말, 포장산업의 정부 지원 근거인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중, 포장분야가 삭제된 이후 우리협회는 주변 포장관련 단체들과의 업계 발전의 동반자로서 “한국포장학회”,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한국포장기술사회”,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한국포장기계협회”, “(주)포장산업”, “한국제지연합회” 등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지난 '97년 정부사업대행 단체로 선정되어 산업기반기금 융자 사업을 전개, 5년간 162개 업체(회원사 58개, 비회원사 104개)에 4백15억원을 이미 융자한바 있고, 출판 사업으로는 월간지인 “포장계”와 각종 단행본을 발간하여 국내외 포장관련 제정보, 신포장기술 등을 전국 포장관련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포장인상』을 제정, 연구개발, 품질관리, 수출진흥, 경영, 영업 등 5개분야와 포장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으로 유능한 포장인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촉진 및 포장산업 위상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유일한 포장인상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



습니다.

또한 포장학과 출신들의 현장 실습을 적극 지원하여 후학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산학 합동으로 2002년부터는 포장관련교육 (관리사 및 전문교육)의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 이미 정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제 교류사업으로 1996년 APF (Asia Packaging Federatian)에 가입하여 가입 12개국과의 원활한 포장기술 및 진흥 관련 제정보를 교류중이며, 특히 “중국포장기술협회 (CPTA)”와 우리협회와의 「한·중포장위원회」설립을 합의하여 매년 발전시키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협회 뿐만이 아닌 국내 전 포장산업계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입니다.

이외에도, “일본포장기술협회 (JPI)”와의 전문서적 번역 교류, 일본 CMM전시회 출품, 대만포장협회와의 교류, 2002년 중국포장 기술협회 주최 “상해포장전시회”에 협회 차원의 출품준비를 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포장전시회에 협회 회원, 비회원을 가리지 않고 거국적으로 시찰단을 구성하고 있고, 국내 최대 국제 포장전시회인 Seoul-pack은 KOTRA와 2회에 걸쳐 공동 주최하여, 수출상담 등에도 참여, 국내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과 포장산업 위상제고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거의 자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더 넓은

발전을 위해 매월 두 번째 화요일은 우리 포장협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 각종 사업들에 대한 분석 토론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경비도 이사들이 직접 부담하기도 할 뿐 아니라 가입된 107개 회원사들도 협회 발전과 업계를 위해 살생의 정신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발적이고도 즐겁게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생력을 가지고 10년을 자라온 포장협회는 많은 포장 관련 단체 중에서 가장 짜임새가 있는 단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러한 단체가 대정부 교섭에 선봉이 되고 여타 단체들이 적극 협력한다면,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우왕설래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대정부 교섭에 좋은 결과를 맺어 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는 단체는 장수할 수 없고, 정부의 예산이나 배정 받아 운영하려는 단체 역시 어느 시기에 가서 정부의 예산이 줄어들거나 중단 될 경우 존재의 위함이 상존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유관 업계 및 단체가 우리협회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되는 사업은 성공률이 높을 뿐 아니라 정부 지원도 쉬워져 우리 포장산업계 모두가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짐을 지게 될 협회의 의지를 유관 업계 및 단체가 우호적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이로 인한 모든 결실을 공정하게 분배, 소유 할 것을 제안하오며, 아울러 배전의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